

중국 무역사절단 운영, 해외 개척 시동

경진원, 10개 기업 상담액 760만불 성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22~26일 중국 상하이 베이징에 미용뷰티, 생활소비재 10개의 기업과 함께 2024년 첫 번째 무역사절단(이하 사절단)을 운영했다.

이번 사절단은 전북도 2위 교역국인 중국에서 추진되었으며, 10개사가 참가해 상담 161건 상담액 760만불 등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청신호를 밝혔다.

올해는 미백크림, 에센스 등 기능성 화장품 관련 업체인 (주)원스킨화장품,

(주)키오, 울스킨, 헬스앤뷰티, (주)메다엔리서치, 피에스비이오 6개사와 반려동물용품 관련 기업 (주)이온, 써니씨아이 드업, (농)유코인, (농)유영인비오 4개사로 총 10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체 (주)메다엔리서치는 주름개선, 미백 등 기능성 제품으로 중국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으며, 중상류 소비자층을 겨냥하여 고기능성 제품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보였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 기업 (주)이온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2~26일 중국 상하이, 베이징에 미용뷰티, 생활소비재 10개의 기업과 함께 2024년 첫 번째 무역사절단을 운영했다.

온라인 판매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상하이 5위, 중국 20위에 들어가는 바이어와 열정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바이어로부터 (주)이온의 팻드라이기 3C 인증 취득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인증 취득 후 시판매 등 수출로 이어갈 가능성을 보였다.

중국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 시장 진출과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진행된 상담을 실질적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속 관리로 참여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이 2024 여수 한국실업육상연맹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뜻깊은 출발을 알렸다.

전개공, 실업육상 1600m계주 우승

작년 여자육상 전국대회서 총 19개 메달 획득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이 올 시즌 실업육상 첫 트랙 대회인 2024 여수 한국실업육상연맹(KITFL)금메달을 획득하며 뜻깊은 출발을 알렸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여수 망마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4 여수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 여자부 1,600m 계주 결승에서 전북개발공사는 3분53초 88의 기록으로 2위 광양시청(3분 54초 43)과 3위 김포시청(3분 54초 67)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세빈, 김지은, 김예영, 노지현 순으로 이어 달린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1,600m 계주에서 금, 은, 동 총 5개 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금빛사냥을 이어갔다.

한편 이 대회 여자 400m 허들 결승에서 전북개발공사 김지은 선수가 김포시청 김초은 선수(1분 23)에 이어 1분 0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고 전북개발공사 장세빈 선수가 여자 400m에서 58초 2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전북개발공사 여자육상단은 지난 시즌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하여 총 19개(금5, 은3, 동5) 메달을 획득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과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26일,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에서 전주·김제·완주지역 여성축산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더(The) 해피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북농협, 축산농가에 행복을 드리는 '더 해피컨설팅'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정수)은 지난 26일,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에서 전주·김제·완주지역 여성축산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더(The) 해피컨설팅'을 실시했다.

더(The) 해피컨설팅'은 전북농협이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를 맞아 축산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경영(경제특강), 신바람(마술), 세무(세무컨설팅)로 구성하여, 연 30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지역사회 지지체로부터 더 친절한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바이오진흥원, 2024년 싱가포르 식품 박람회 참가

2만여불 현장 샘플계약 · 60만불 수출상담 성과 거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도는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해 지난 23~26일 4일간 싱가포르 expo에서 열린 '싱가포르 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전북 농수산식품 공동관을 운영한 결과 약 2만불의 현장 샘플계약과 약 60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바이오진흥원은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 식품 업체는 2개 기업(3개 품목)으로 찰수수, 찰수수떡, 찰수수떡 등 냉동식품과 생강차, 단팃죽 등의 건강식품 제품을 홍보·전시하였으며, 동남아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싱가포르 및 동남아 시장은 팬데믹 동안 삼절 폐쇄로 인해 온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26일 4일간 싱가포르 expo에서 열린 '싱가포르 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인에서의 식품 및 음료 소비가 급증하였으며, 팬데믹 이후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HMR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트렌드로 인해 전북의 찰수수떡, 건강간장 등을 비롯한 HMR 제품과 건강식품인 생강차, 팃죽 제품이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기업들은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고장에서 찰수수떡과 건강간장 등을 생산하는 M기업의 경우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인 K사와 찰수수떡을 2만불 샘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생강차, 팃죽 등을 생산하는 D사의 경우 내달 태국 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바이어의 공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이은미 원장은 "전북도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버스로 전주국제영화제 지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임만규) 노사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수소전기차를 활용해 전북지역 대표 문화축제 중 하나인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 지원에 나선다.

수소전기차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를 생산하는 회사 특성을 살려 5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수소버스를 셔틀버스로 지원함으로써 수소 시범도시 전주 위상에 걸맞는 친환경 영화제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를 위해 고속버스급 수소버스 5대를 투입해 하루 10차례씩 총 50회에 걸쳐 전주역

등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손님들을 행사장까지 실어다녀할 계획이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 지원되는 수소버스는 지난해 4월 새로 출시된 최신형 모델로 고속형 대형버스급 중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친환경 차량이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행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이 함유된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정화기'라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행사에서 생산하는 수소전기차를 활용해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 지원에 나선다.

별명까지 갖고 있으며,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차 특성상 엔진 구동 차랑과는 달리 차체 진동이 전혀 없어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즐길 수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북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상호 협력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병순)와 함께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기관별로 상이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모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정책(의 국민고용허가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및 추진사업(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등)의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이다.

전북중기청 인태용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긴박이해를 해소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전북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의 미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이 보유한 지역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 기관의 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